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국제 순례 성모상 순회 기도**

부산 순회 기간 - 6/1(목) 16:00~3(토) 12:00

* 환영 미사 (주례: 손삼석 주교)

일시 - 6/1(목) 16:00 장소 - 푸른군대 경당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목적 - 세계 평화(한반도 평화 통일)와 가정 성화를 위한
기도와 보속(개별 철야 기도 및 개인 기도 가능)

문의 : 646-3746(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 청소년 주일

제1독서 사도행전 1, 1~11

화답송 시편 47(46), 2~3, 6~7, 8~9 (© 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환호소리가운데 하느님이오르신다. 나팔소리가운데 주님이오르신다.

1.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2.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3.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에페소서 1, 17~23

복음환호송 마태 28, 19, 20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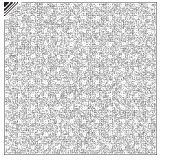
복음 마태오 28, 16~20

영성체송 마태 28, 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영혼의 근력 운동



오늘날 우리는 의식주가 풍성해져, 과거보다 배고픔, 아쉬움,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영양 과잉, 비만, 운동 부족, 인내와 기다림 부족 등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이렇게 입력과 흡수는 잔뜩해 놓고, 출력과 열량 소비는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가정과 사회도 쌓이고 막히고 순환이 잘 안 되어 불협화음, 소화 불량, 소통 장애를 일으킵니다. 선순환이 잘 안 되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관계도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의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처진 근육을 웨이트 트레이닝(반중력 운동)으로 끌어 올리듯, 지치고 늘어선 '마음의 근육'도 계속 끌어 올리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근력 운동'은 마음이 땅(세상)에 달라붙는

집착과 안락함, 허세와 허영에서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중력에서 자유로우면 마음대로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내 자아가 자꾸 끌어당기는 이기심과 교만과 지나친 욕심을 거슬러, 위로(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영혼의 근력 운동'이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보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 힘을 나를 맡겨, 비움과 섬김 운동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주님을 행복시키기 보다는, 내가 손들어 주님께 행복하는 그런 수련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야말로, 신앙의 바른길을 걷게 하고, 이 시대의 무자비와 삭막함을 극복할 비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의 근력'으로 내 삶을 하늘 향해 끌어올리는 운동을, 아니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운동을 거듭 거듭 하십시오.

주님의 승천은 이런 노력으로 우리 삶이 천상 가치를 추구하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도록, 주 친히 천국 문을 여시고 본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은총을 모든 대중 매체를 잘 활용해 값진 신앙의 유산으로 대물림하자는 홍보 주일이자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도록 승천하시어,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 구원의 완성을 도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의 가치와 의미를 먼저 살고, 후손인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잘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늘 곁에서 힘이 돼 주겠다."하시는 격려와 약속으로 들립니다.



경훈모
알렉시오 신부
덕천성당 주임

지금 여기

기다릴 땐 지루했지만



주로 중고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편인데요, 중고서점에 읽고 싶은 책이 없을 때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기다리곤 합니다. 가끔 의기소침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질 때 장바구니에 담아둔 책을 '저지르듯' 결제하는데요, 새 책을 사는 것만으로도 큰 부자가 된 듯 부듯해집니다. 이럴 땐 아껴둔 것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Busan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부산 FM 101.1 MHz 울산 FM 94.3 MHz 녹산 FM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5.29(월)~30(화)
경훈모 신부(덕천성당 주임)
5.31(수)~6.3(토)
최연수 신부(금정성당 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문자참여 #2340

월~목 12:15~14:00

5.30(화) 함께 하는 여정

출연 : 우정성당 Pr. 무영시데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6.2(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출연 : 주사위(송동진 요셉 외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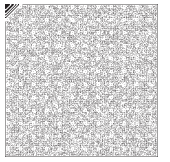
신부들의 수다 2017 참여보세요~ 프로젝트

참여 신청 : (051) 600-8825

선물 : 10만원 상품권(백화점)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



이영훈 알렉산델 신부

쉬는 교우의 증가, 그리고 주일미사 참례와 각종 성사 관련 지표의 하락세는 이제 놀라운 사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 하였습니다. 즉 과거에 비추어 현재의 문제를 이해, 분석하여, 미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역사'라 하였는데, 혹시 지금의 '교회의 위기', '활기를 잃은 복음화'의 해법을 지난 교회 역사 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20세기 초 가톨릭액션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비오 11세 교황님은 당시 노동관련 단체였던 '가톨릭노동청년회' (JOC)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교황님은 당시 교회의 위기 중 하나가 '노동문제에 대한 교회의 미흡한 대처'

에 있었음을 고백하십니다. "교회 는 그 당시 노동자들을 잃었습니다."라는 교황님의 성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는 18세기 이후 급속도로 이루어진 산업화와, 그로 인해 발생한 참혹한 노동 문제라는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하였고, 변화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교회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교회는 열악한 노동 현실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인내와 기도'만을 강조하였을 뿐, 그들이 처한 노동 현실의 불의한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인식조차 되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오판은 노동자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떠나게 하였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현실 고통을 외면하고, 어깨를 내어 주지 못한 교회란, 그저 '짠맛을 잃은 소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에서 지금의 복음화, 교회의 문제

는 '나태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앉아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에 안주하는 '생명력을 상실한 복음'이 바로 '나태함'의 뿌리라고 지적합니다. 대신 교황님은 '아전병원'으로서의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복음의 중심'으로 삼고, 이를 통해 '가난한 교회'로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복음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복음화의 위기'에 대한 해법은 아마도 비오 11세 교황님의 성찰처럼, 노동자와 그들의 노동문제를 외면했던 19~20세기 상황을 되짚어봄으로써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의 열쇠말은 '현장'입니다. 고통이 있는 현장, 희망을 잃은 이들이 주저앉은 '그곳'이 지금의 위기를 넘어 새롭고 활기찬 복음화와 교회의 쇄신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 노동사목 free6403@hanmail.net

환경과 생명 아무도, 아무것도

모내기철입니다. 온 들녘에 트랙터와 경운기 소리에, 농민의 땀방울이 가득합니다. 오래전 시작된 봄기운에 시골은 이미 기지개를 켜지만, 어쩌면 지금이 한창이라고 하겠습니까. 논에는 이미 물을 대고 '논 삶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써레질로 물에 조금씩 뭉그러진 흙을 잘게 부수고, 가래질로 논바닥을 평평하게 했습니다. 논을 삶던 외중에 탁해진 눈물은 이삼일이면 맑아지고, 그즈음에 못자리에서 자라던 모를 가져와 모내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지에 가득한 생명의 기운을 만끽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윤리적으로 착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말썽을 부리지 않아 적당히 통제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법 없이도 살만큼 순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희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집회 36, 4)내려고 파

견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함은 윤리적 선도,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과학적 사실과 합리성도 넘어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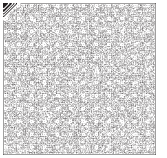
정채봉 프란치스코라는 시인의 '들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냉이 한 포기까지 들어찰 것은 다 들어챘구나. / 네잎클로버 한 이파리를 발견했으나 차마 못 따졌구나 / 지금 이 들녘에서 풀잎 하나라도 축을 낸다면 / 들의 수평이 기울어질 것이므로."

기술적 사고에 사로잡혀 선택과 집중으로 생명의 망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배제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했던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마태 13, 29)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정돈해서 잡초 하나 없이, 오직 한 가지 작물만 온 들녘에 넘실거리는 모습은 하느님에 대한 모독이며 생명에 대한 폭력입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6월의
도서, 영화



킨

하나의 인연으로 연결된 세 사람이 전하는 삶의 이야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정성껏 맞아주는 친절한 순애 씨.
한평생 느껴보지 못한 사랑에 눈을 뜬 수줍은 상범 씨.
절망 끝에서 삶을 되찾으려는 따뜻한 수미 씨.

- ▶ 상영관 : 가톨릭소극장(아트씨어터C&C) ▶ 상영시간표 :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 442-0602, cafe.naver.com/cnctheater
- ▶ 관람료 : 주보 지참 시 6천원 → 5천원, 단체 관람 시(20명 이상) 4천원

예수, 여기에 그가 있었다 1

▶ 제임스 마틴 지음 ▶ 오영민 옮김
▶ 가톨릭출판사 ▶ 15,000원



저자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왜 나는 그분께 내 삶을 맡겼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기도를 하며 그분이 사셨던 이스라엘을 순례했습니다. 이 책은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새로운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기도로 신학하기, 신학으로 기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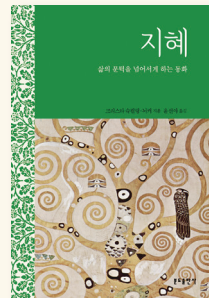
▶ 김영선 지음 ▶ 생활성서사 ▶ 14,000원



기도하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 기도하는데도 신자로서 미성숙한 모습은 변함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던져봤을 기도와 삶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저자는 구약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에서 그 해법을 찾습니다.

지혜

▶ 크리스타 슈필링-뇌커 지음 ▶ 윤선아 옮김
▶ 분도출판사 ▶ 8,000원



이 책에 실린 19가지 동화가 자극이 되어 당신 마음속에 감추어진 지혜의 원천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삶이란 기적도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길 희망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삶의 문턱을 넘어서 새롭게 통찰할 것입니다.

교구 홈페이지 '책과 나는 정담' 코너에 권장도서의 독후감을 올려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비치하는 것은 몰라도 성수를 가정에 두는 것은 왠지 기복적인 느낌이 듭니다.

성수란 하나님의 축복을 청하며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제가 축성한 물입니다. 물은 크게 성서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생명수로서의 물(사편 104, 10)과 죽음과 단죄로서의 물(창세기 7장), 그리고 정화수로서의 물로 구분되지요. 물론 거주지나 사람의 축복을 위한 용도로도 쓰이고 구마를 위한 예식에서 사용합니다. 즉 영적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나 육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 쓰이는 만큼 성수를 뿌리는 행위에는 정화와 축복의 이중적 효과가 있습니다. 축복을 하려는 사물에서 모든 악의 흔적을 제거하고 선업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입구에서 십자 성호를 그을 때 성수를 사용하

여 악에서의 해방과 은총을 기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수를 이마에 찍거나 뿌리는 이유는 신자들에게 세례의 기억을 떠올려서 지속적인 정화와 회개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재생의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새롭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하여 이미 받은 '은총의 생명을 주는 세례를 새롭게' 해 주기를 청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수를 마시면 아픈 곳이 낫는다는 등의 이유라면 기복적이지만 정화와 축복이라는 성수의 의미를 잘 살려서 사용한다면 신앙생활에 유익한 도구입니다. 주님의 은총은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복적이라는 생각을 털어내기 바랍니다.

▶ 장재봉 신부(선교사목국장) gajbong@hanmail.net

모라성요한성당, 가족 발씻김 운동

모라성요한성당(주임 : 최요섭 신부, 회장 : 정경자 율리안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발 씻김 운동’을 펼쳤다. 본당 가정분과장 이재민 오딜로 씨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발을 만지고, 씻어줌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행사였으며,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와 사랑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락성당, 성경 통독 100주간 시상식

안락성당(주임 : 윤경철 신부, 회장 : 김준 가브리엘)은 전신자들 대상으로 성경 통독 100주간(15년 5월 4일~17년 4월 29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신자들에게 매주 성경 통독 분량을 정해주고, 통독 후 목상한 내용을 ‘말씀 일기’에 기록하게 하였다.

지난 5월 21일(일) ‘성경 통독 100주간 시상식’을 열어, ‘말씀 일기’ 제출자 중 박필순 글라라 외 2명에게 최우수상, 108명에게 우수상을 시상했다.



부카대연 체육대회



5월 14일(일) 부산기톨릭대학교 강당 / 담당 : 정철용 신부, 회장 : 이동신 베네딕도

환경정화 운동에 '구슬땀'



울산대리구 내의 본당 사회복지분과 위원 80여 명은 지난 5월 13일(토) 강동정자해수욕장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 활동을 하였다. 사회사목담당 김진수 신부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사

당리성당, 부활계란 수익금 전액 기부

당리성당(주임 : 최재현 신부, 회장 : 한창희 바르톨로메오) 주일학교 학생들은 부활 계란을 직접 만들어 판매한 수입금 전액을 지난 5월 6일(토) ‘메리놀병원 남수단 아강그리알 우물파기 사업’에 기부했다. 한편 메리놀병원에서는 매년 잔반 ZERO 운동, 기타 후원금으로 우물파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 '바다의 별' 레저야, 청년P. 간부 연수



5월 14일(일) 김범우순교자성지 / 지도 : 장재봉 신부, 단장 : 김정균 노엘

청학성당, 혼인갱신식



5월 21일(일) 23쌍 부부 / 주임 : 이영준 신부, 회장 : 안석호 미카엘

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선성당(주임 : 김상효 신부, 회장 : 이성호 안토니오)에서도 14일(일) 흰여울문화마을 아래 해안산책로 일대를 두루 다니며 환경정화 활동에 힘썼다.



부산ME - 성지순례 및 한국ME 40주년 행사참가

5월 20일(토)~21일(일) 감곡매곡성당, 죽산성지, 남양성모성지, 잠실체육관



천곡성당, 본당의 날 행사

5월 21일(일) 농서초등학교
주임 : 정상천 신부, 손영배 신부, 회장 : 강석규 마태오

전포성당, 벽화길 조성



주임 : 김명선 신부, 회장 : 장영길 베드로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월미사(부산)

· 6.2(금) 13:30(목구기도), 14:00(미사)
· 교구청 2층성당 / 문의 : 629-8760~2(성소국)

천주교부산교구 어울림한마당

· 6.4(일) 10:00~16:00
· 스포원파크 내 실내체육관
신청 : 5.28(일) 18:00 까지
준비물 : 미사도구, 도시락, 운동복장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문의 : 516-0815(사회사목국)

본 당

만덕성당 은혜의 밤

· 6.14(수) 18:30~22:00 / 문의 : 343-6270
강사 : 장훈철 신부 / 강의 및 미사, 안수

사직대건성당 사무원 구함

자격 : PC 사용 가능 / 문의 : 501-5985
제출서류 : 교적사본, 이력서, 본당신부추천서

서동성당 은혜의 밤

· 6.1(목) 19:00 · 서동성당 / 문의 : 525-3744
주제 : 시작은 물음표(?)였지만 이제는 느낌표(!)로 삼시다 / 강사 : 장훈철 신부(서포성당 주임)

연산성당 특별 치유 대피정

치유 사목자 마태오 신부 초청
· 6.13(화)~14(수) 09:00~18:00 · 연산성당
강사 : 마태오 신부(인도), 안토니 테카나스 신부(미국), 테레사 수녀(인도)
준비물 : 미사도구, 도시락, 개인용 돛자리
문의 : 865-1806, 867-1464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바로로 아람터 후원회 미사

· 5.29(월) 10:30 · 바로로아람터
문의 : 514-6988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그레고리오 성음악미사

· 5.31(수) 19:30 · 맘미성당 / 단장 : 김중민
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있고 함께 활동하실 남성단원
입단 문의 : 010-7339-8545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성모 신심 피정

· 5.29(월)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강사 : 강영구 신부(마산교구)

첫금 철야 첫토요 신심 미사

철야 : 6.2(금) 21:30 푸른군대 경당
강사 : Francis Tiquia 신부(필리핀) / 내용 :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과 함께 하는 철야기도
신심 : 6.3(토) 11:00 - 생명 수호(태아)를 위한 십자가의 길, 아기봉헌 및 갱신 있을(사전접수)
문의 : 646-3746(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소화영아재활원 후원회 미사

· 5.29(월) 13:30 · 소화영아재활원
문의 : 644-1729, 0272

아뉴스데이합창단 성음악 미사

· 5.30(화) 19:30 · 양정성당
지도신부 : 임석수 신부 / 지휘 : 최금화
문의 : 010-8544-7530(단장 채상득)

성음악사랑153후원회를 위한 감사미사

· 5.31(수) 19:30 · 개곡성당
연주 : 안젤리카그레고리오합창단
주례 : 임석수 신부 / 문의 : 010-8545-6504

부산성모병원

제11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접수 : 5.22(월)~6.9(금) / 교육 : 6.20(화)~22(목)
· 부산성모병원 3층 세미나실
대상 : 호스피스에 관심 있으신 분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음(자원봉사는 교육 후 면담을 통해 결정)
교육비 : 4만원(교재, 점심식사 포함)
문의 : 933-7133, 7137

성서교육원 <요한묵시록> 특강

강사 : 이진수 신부(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대상 : 성서가족 및 일반신자
[낮반] 6.5(월) 10:00~16:00(미사 있음)
· 구봉성당 / 회비 : 2만원(식사 제공)
[직장인반] 6.17(토) 14:00~18:00(미사 있음)
· 성서교육원 / 회비 : 1만원
문의 : 465-8162, 467-0761(성서교육원)

정하성바로영성관 6월 예수성심 피정

· 6.15(목) 16:00~17(토) 13:00
접수마감 : 6.14(수) / 회비 : 10만원
문의 : (055)383-3101, 팩스 (055)383-3102

부산 가톨릭 미술인회 정기전

· 5.30(화)~6.6(화) · 가톨릭센터 대경갤러리
개전식 : 5.30(화) 18:00 / 문의 : 462-1870

선종주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07.6.1. 정명조(아우구스티노) 주교님
2008.6.3. 최재선(요한) 주교님

우리 함께 하느님 찬양해요~!♪

생활성가팀 주사위 제3회 찬양Concert
(주님의 사랑과 위로)

지금 그리고 여기(hit et nunc) - II

일시. 6/4(일) 16:00 장소. 양정성당 성전

특별출연. 신상옥 안드레아, 계만석 프란치스코

문의 : 010-3483-0330

<p>다양한 예술과 세계 각종 보석 도매, 목주반지 전문</p> <h3 style="text-align: center;">서울공예사</h3> <p>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 · 김경자(모니카) 현대차 그룹이 운영하는 종교차 경매장 현대클로비스 양산 종교차 경매장 경매출품, 매입전문평가사</p> <h3 style="text-align: center;">에이스모터스</h3> <p style="text-align: center;">조요한 (요한)</p> <h3 style="text-align: center;">010-8483-5393</h3>	<h3 style="text-align: center;">분도목공소</h3> <p>제대, 강론대, 장래틀 등 각종 성구 제작</p> <p>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p> <h3 style="text-align: center;">백천피부과의원</h3> <p>(구) 괴정동 백천피부과</p> <p>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따)</p> <p>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흉조·에스테틱</p>	<p>since 1977 보이지 않는 보청기 디지털보청기 전문 취급</p> <h3 style="text-align: center;">한독보청기</h3> <p>김무남(아우구스티노)</p> <h3 style="text-align: center;">632-2248, 2360</h3> <h3 style="text-align: center;">빵장수 야곱</h3> <p>(성모올타리공동체)</p> <p><건강웰빙식품> 우리말로 만든 빵(무방부제)</p> <h3 style="text-align: center;">292-3136</h3> <p>사상시외버스터미널 진주 홈 맞은편</p>	<h3 style="text-align: center;">소중한눈 안과</h3> <p>라식/라섹/백내장 노안수술/안내렌즈 대표원장. 김 승 기(요셉)</p> <h3 style="text-align: center;">920-7788</h3> <p>센텀시티역 13번/입페리얼타워 14층</p> <p>장기요양보험지정 뇌졸중, 치매 재활전문 노인주간보호센터</p> <h3 style="text-align: center;">활기찬 성모재활센터</h3> <p>주만규(스테파노) 639-1008 남구 자성로 148, 5층(문현동) 문현역 1번 출구</p>	<p>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p> <p>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p> <h3 style="text-align: center;">242-4222, 1522-4324</h3> <p>www.ss0924.com</p> <h3 style="text-align: center;">재활전문 명품요양병원 좋은애인요양병원</h3> <p>부산최초 보건복지부인증 병원 간호사 1등급, 간병사 비품 부산 최고 뇌졸중/중풍/통증/척추손상 등 전문재활치료 말기암 호스피스/내,외과계 한방협진 입원상담 동래행성병원 T. 520-7700</p>
--	---	---	---	--

